

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94280)

AI SoC 병목을 푸는 인프라 IP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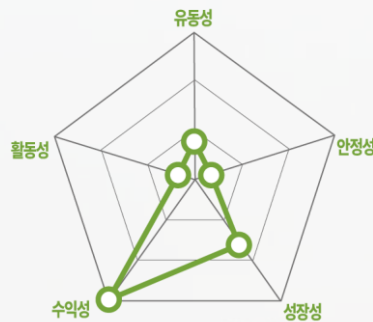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오픈엠티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핵심 IP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IP는 AI 연산을 담당하는 NPU와 데이터 이동 및 메모리 접근을 지원하는 NoC Interconnect, DDR Memory Controller, DDR PHY 등으로 구성.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연산-이동-저장 연결'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점이 경쟁력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정책과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확대는 중장기 수혜 요인.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총 8,002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사는 NPU, DDR 메모리 컨트롤러, DDR PHY, NoC 인터넥트 등 온디바이스 AI칩 설계에 필요한 핵심 IP를 보유. 또한 삼성 파운드리 8nm 이하 첨단 공정에서 LPDDR5X 이상 메모리 IP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 2026년은 하반기 수주 확대와 비용 효율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 2026년 매출액은 179억원(+11.4% YoY), 영업적자 231억원으로 적자 폭 축소가 예상됨. 하반기에는 국내의 수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복미법인 정리, 정부보조금 확대 효과로 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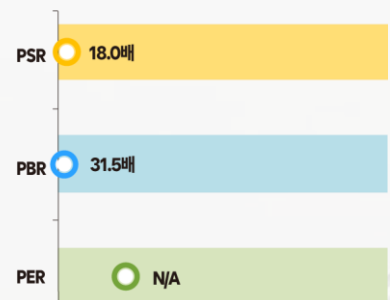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94280)

Analyst 오정하 jh.oh@kirs.or.kr
RA 권지승 rnjswltmd32@kirs.or.kr

KOSDAQ

반도체와반도체장비

AI 반도체 인프라 IP를 보유한 전문 기업

오픈엠티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핵심 IP를 제공하는 기업. NPU, NoC Interconnect, DDR Memory Controller, DDR PHY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반도체의 연산-데이터 이동-메모리 접근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IP 포트폴리오가 경쟁력.

K-온디바이스 AI 정책 수혜 기대

정부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동사의 중장기 수혜 요인. 동 사업은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주요 산업에 적용 가능한 국산 온디바이스 AI칩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 온디바이스 AI칩은 제한된 전력-면적 환경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LPDDR 기반 DDR PHY 및 메모리 컨트롤러 IP 수요 확대가 기대됨.

2026년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

2026년 매출액은 179억원, 영업적자 231억원을 기록할 전망. 하반기 K-온디바이스 AI 정책 관련 국내 수주와 해외 수주가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북미 인력 축소 및 정보보호조금 확대 효과로 적자 폭 축소가 예상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00	196	153	161	179
YoY(%)	93.1	95.7	-21.8	4.8	11.4
영업이익(억원)	-253	-159	-246	-289	-231
OP 마진(%)	-252.3	-81.0	-160.6	-180.0	-128.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52	-149	-273	-301	-229
EPS(원)	-1,367	-697	-1,183	-1,208	-846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13.7	27.9	21.0	22.3	17.9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4.9	26.8	5.7	21.0	25.2
ROE(%)	-95.6	-56.3	-67.1	-77.5	-151.0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7/1)	12,190원
52주 최고가	21,800원
52주 최저가	10,380원
KOSDAQ (7/1)	929.35p
자본금	25억원
시가총액	3,212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26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49억원
외국인지분율	2.93%
주요주주	이성현 외 9 인 15.43%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외 1 인 12.3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3.3	-15.1	-14.1
상대주가	-13.4	-15.4	-27.6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및 연혁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
IP 포트폴리오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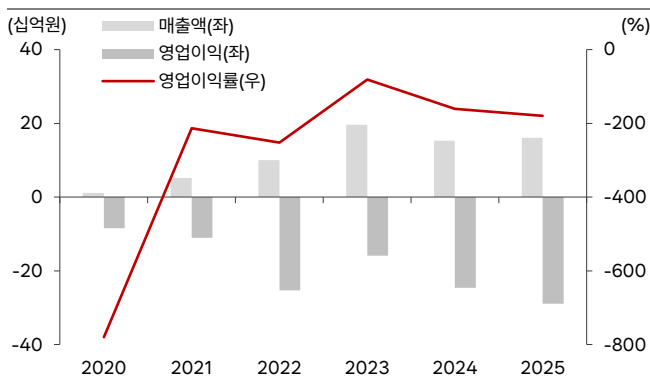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2017년 12월 설립된 반도체 설계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전문기업으로, 메모리 시스템 IP와 신경망처리장치(NPU) IP를 양대 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8년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삼성 파운드리 IP 생태계인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며 제품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 해 인터커넥트(Interconnect) IP를 시작으로 2019년 ENLIGHT NPU, 2020년 메모리 컨트롤러 IP 출시 및 PHY IP 최초 공급계약을 차례로 진행하며 메모리 인터페이스 전반(PHY, 컨트롤러, 인터커넥트)을 아우르는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후 공정 미세화와 차세대 메모리 대응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해 왔다. 2021년 12나노 LPDDR5/4X PHY 테스트칩을 기점으로 2022년 7나노 LPDDR5x 및 HBM3 테스트칩, 2023~2024년 삼성 5나노(SF5A) LPDDR5X PHY의 라이선스 및 실리콘 검증으로 적용 공정을 선단 노드까지 확장하였으며, AI 데이터센터 수요의 핵심인 HBM 영역으로도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다.

상용화 측면에서도 누적 라이선스 계약이 2021년 27건에서 2025년 71건, 2026년 4월말 기준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 등 글로벌 탑 티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3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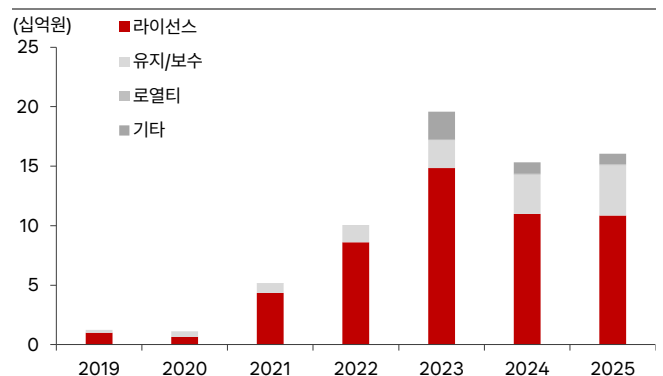
2025년 연간 매출액 161억원(YoY +4.8%), 영업손실 -289억원(YoY 적자 확대)을 기록했다. 적자폭의 확대는 선행 투자 부담이 큰 반도체 IP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한다. 반도체 IP 사업은 매출이 발생하기에 앞서 대규모 개발 비용이 먼저 투입되는 구조이며, 제조 설비 없이 인력 중심의 사업으로 비용의 대부분이 연구개발비(인건비)로 구성된다. 당사는 NPU, 메모리 컨트롤러, PHY 전반에 걸쳐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충했고, 이는 당사의 연구개발비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영업손실은 IP 포트폴리오 구축기에 수반되는 선행 투자 성격으로 판단된다.

매출액,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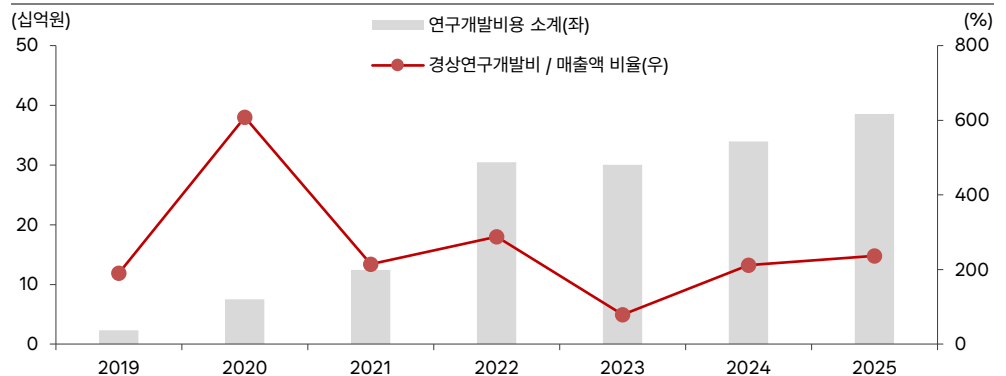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구개발비용 및 매출액 대비 비율 추이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및 자회사

대표 FI 중심 주주구성

2026년 4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기준 오픈엣지테크놀로지의 총 발행주식수는 27,421,933주이다. 최대주주는 이성현 대표로 지분을 약 13.4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관계자 10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약 14.94%이다. 이성현 대표는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반도체 설계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10여 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동사를 창업했다.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는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과 스톤브릿지 신성장4.0투자조합이 있으며, 유상증자 이후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의 지분율은 기존 8.02%에서 약 11.9%로 3.9%p 확대되었다. 반면 스톤브릿지 신성장4.0투자조합의 지분율은 희석 효과로 약 7.7%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타 유동주식은 전체의 약 65.7%를 차지해, 최대주주 및 주요 FI 지분을 제외한 주식은 비교적 분산된 구조이다.

해외법인 효율화 추진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종속회사로 캐나다 법인 The Six Semiconductor와 일본 법인 Openedges Technology Japan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법인 모두 지분율 100%의 완전자회사다. 반면 미국 법인 Openedges Technology Corporation은 2025년 8월 청산을 완료했다. 동사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높은 해외 거점을 정리하며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고정비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오픈엣지스퀘어는 국내 법인으로, 온라인 IP 세일즈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다. 보통주 기준으로는 오픈엣지테크놀로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고려한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65.4%다.

사업부별 설명 및 주요 보유 기술

AI 반도체 핵심 IP 포트폴리오 보유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핵심 IP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주요 IP는 AI 연산을 담당하는 NPU와 데이터 이동 및 메모리 접근을 지원하는 NoC Interconnect, DDR Memory Controller, DDR PHY 등으로 구성된다.

NPU는 AI 연산을 담당하는 IP로, 반도체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사진 속 사람을 인식하거나 음성을 알아듣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다만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필요한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공급 속도도 중요하다.

On-Chip Interconnect는 SoC 내부에서 각 IP 블록을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한다. 회사로 비유하면 부서 간 자료가 오가는 사내 메신저나 사내 도로에 가깝다. NPU, 메모리 컨트롤러 등 여러 블록 사이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이동하도록 해 병목 현상을 줄인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외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사이에서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 정리 담당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NPU가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면, 어떤 데이터를 언제 가져오고 다시 저장할지 조율한다. 데이터를 제때 가져오지 못하면 AI 연산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PHY는 시스템반도체와 외부 메모리 사이에서 실제 데이터가 오가는 '출입구' 역할을 한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교통 정리를 담당한다면, PHY는 실제 차량이 지나가는 톨게이트나 케이블 연결부에 가깝다. 고속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과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동사의 경쟁력은 AI 연산을 담당하는 NPU뿐 아니라,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On-Chip Interconnect,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메모리 컨트롤러, 실제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PHY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연산-이동-저장 연결'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P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추론 AI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을 완화하고, 성능 및 전력 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판단된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의 IP 사업 영역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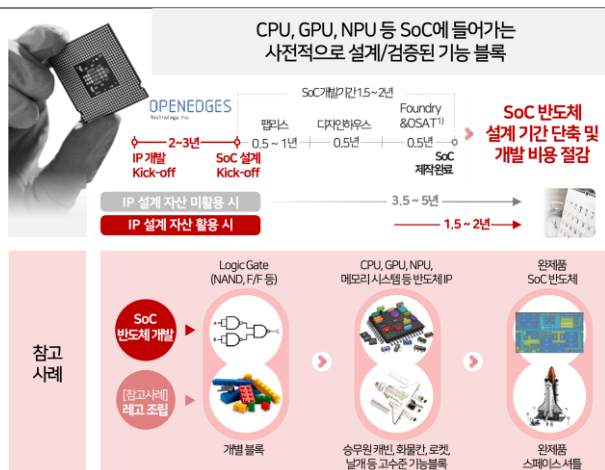
산업 현황

1 반도체 IP란?

SoC 개발 효율을 높이는
설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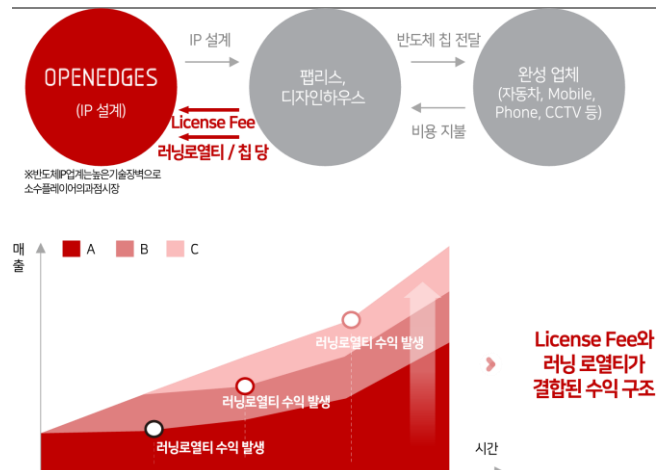
반도체 IP(Intellectual Property)는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특정 기능을 미리 설계해 놓은 재사용 가능한 회로 설계 자산이다. 펌리스나 디자인하우스는 CPU, NPU, 메모리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등 필요한 기능을 모두 직접 설계하지 않고 검증된 IP를 도입함으로써 SoC(System on Chip)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과 설계 실패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IP는 높은 설계 기술력과 검증 역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동사가 영위하는 AI 연산, 데이터 이동, 메모리 연결 영역 외에도 입출력, 보안, 전력관리, 통신 등 다양한 IP 시장이 존재한다.

반도체 IP는 반도체 기능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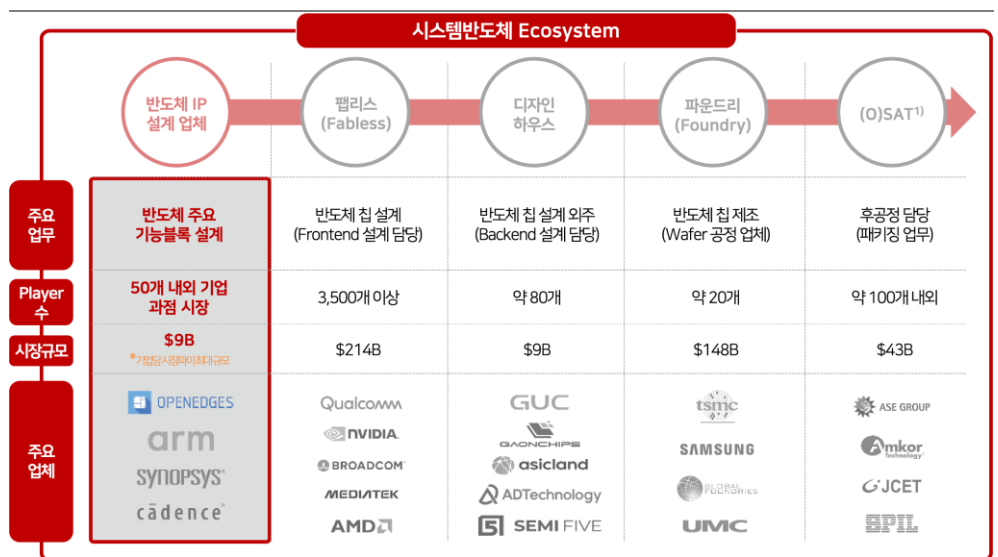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IP기업의 수익구조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IP기업은 펌리스 및 디자인하우스가 필요로 하는 기능 블록을 선제적으로 개발 및 공급



* 주1)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반도체 패키징 조립 및 테스트 업체로 웨이퍼 공정 이후 후공정 담당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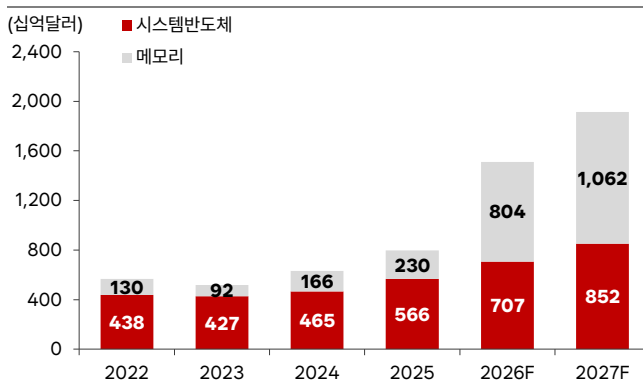
시장 규모와 수익구조

IP시장은 과점시장

IP시장은 반도체 설계 밸류체인 상 가장 앞단에 존재한다. 2025년 기준 전체 반도체 시장규모가 1,100조원(7,956억달러)이라고 할 때, IP시장은 약 1% 수준이다. 다만 AI-HBM 중심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AI-HPC용 반도체 수요 확대로 2026년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 1.5조달러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첨단 SoC 설계 복잡도 상승에 따른 IP 라이선스 수요와 양산 이후 로열티 기반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반도체 시장 대비 비중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시장 플레이어가 제한적이고 상위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주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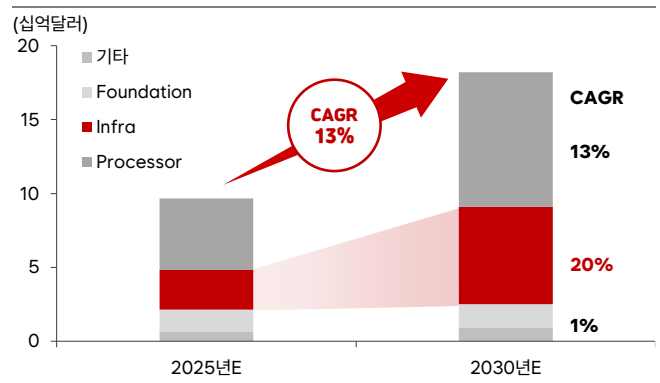
IP시장이 과점 형태로 형성된 이유는 높은 진입장벽과 엄격한 트랙레코드 요구 때문이다. 고성능 SoC 개발에는 수천 억원 단위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IP 하나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전체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객사는 검증되지 않은 IP 채택을 꺼리고, 양산 적용 이력과 반복적인 검증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IP 시장은 기술력뿐 아니라 고객 레퍼런스, 공정 대응 경험, 장기간 축적된 신뢰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시장 규모



자료: WSTS(26년 4월),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IP 시장 구성



자료: IPnest(25년 4월),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라이선스와 로열티 구조

반도체 IP 기업의 수익구조는 크게 라이선스 매출과 로열티 매출로 구분된다.

라이선스 매출은 고객사가 특정 IP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초기 매출이다. 수주를 받은 이후 기존 IP를 고객사의 설계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통상 1~2개 분기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수주가 곧바로 매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IP가 고객사에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가 매출로 전환되기까지는 반년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후 IP가 실제 칩에 탑재되고 고객사의 제품이 양산에 들어가면 로열티 매출이 발생한다. 로열티는 최종 칩의 판매량 또는 출하량에 연동되는 구조로, 고객사의 제품이 상용화되고 판매가 확대될수록 IP 기업의 반복 매출로 이어진다.

다만 모든 라이선스 계약이 로열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IP가 설계 단계에서 채택되더라도 최종 제품 양산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P 기업의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라이선스 수주와 매출 전환 속도에 영향을 받고, 중장기적으로는 고객사의 양산 성공 여부와 출하량에 따라 로열티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다.

글로벌 IP 피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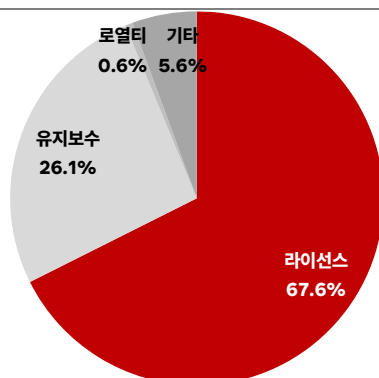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반도체 IP 사업자로는 Arm, Synopsys, Cadence 등이 있다. 이 중 Arm은 글로벌 IP 시장 1위 사업자로, CPU IP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Arm은 모바일 AP, 서버 CPU, 차량용 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CPU 아키텍처와 프로세서 IP를 공급하며, IP 라이선스와 칩 출하량에 연동되는 로열티를 통해 매출을 창출한다.

반면 Synopsys와 Cadence는 IP보다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가 주력 사업이다. EDA는 반도체를 설계·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양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EDA 관련 매출이 70%를 상회한다. 두 회사는 본래 EDA 업체로 출발했으나, 공정 미세화와 복잡도 증가로 검증된 IP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사업영역을 넓혔다.

IP가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부품 설계도라면, EDA는 이 부품들을 조립하고 검증하는 설계 프로그램에 가깝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SoC를 개발할 때 CPU, GPU, NPU, USB, 메모리 컨트롤러 등 100개 이상의 IP를 하나의 칩 안에 통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IP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배선·전력·발열·타이밍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는 핵심 도구가 EDA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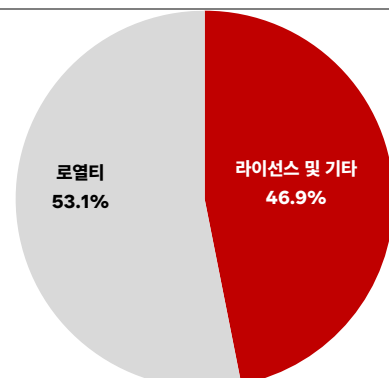
따라서 EDA와 IP 간 시너지는 크다. 고객은 동일 업체의 EDA와 IP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호환성 및 검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첨단 공정에서는 IP 오류가 전체 칩 개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검증된 EDA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IP에 대한 선호가 높다. EDA 기업은 전 세계 고객사의 설계 흐름과 기술 요구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어, 고객이 어떤 IP를 필요로 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덕분에 Synopsys와 Cadence는 EDA 기반 고객 접점을 활용해 IP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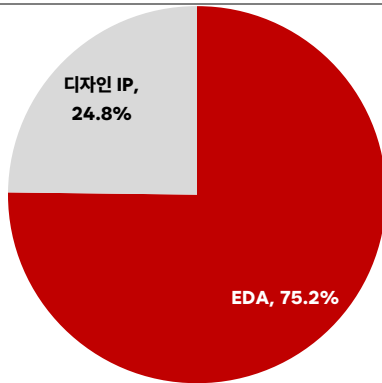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FY25 기준(25.01~25.12)

ARM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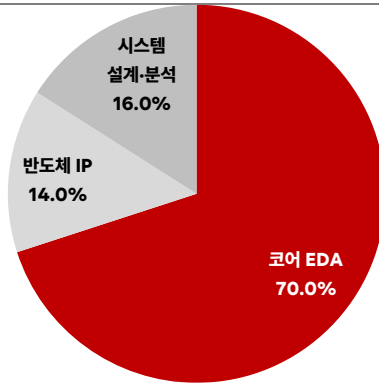
자료: ARM,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FY26 기준(25.4~26.3)

Synopsys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자료: Synopsy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FY25 기준(24.12~25.11)

Cadence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자료: Cadenc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FY25 기준(25.01~25.12)

LPDDR로 확장되는 DRAM 성장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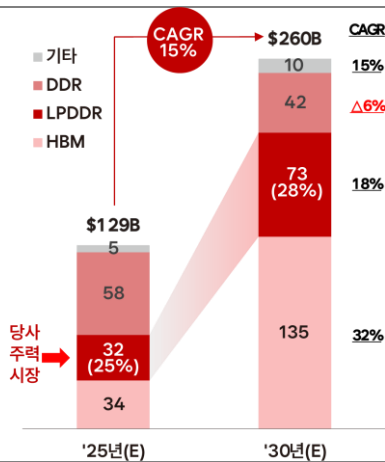
LPDDR이 여는 시장 기회

DRAM 시장은 AI 서버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동시에 LPDDR(Low Power Double Data Rate, 저전력 DRAM) 역시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HBM은 GPU와 결합해 고성능 AI 연산에 필수적인 메모리로 자리잡았지만, 높은 가격과 전력 소모, 제한적인 공급능력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전체 서버 내 전력 부담이 커지면서 CPU 메모리는 일반 DDR 제품이 아닌 LPDDR을 사용해 전력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LPDDR은 모바일 기기에서 검증된 저전력 메모리 표준으로, 온디바이스 AI와 엣지 디바이스뿐 아니라 일부 서버 영역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생 IP 업체 입장에서는 HBM보다 LPDDR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찾기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HBM은 고난도 패키징과 고객 맞춤형 설계 역량이 요구돼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LPDDR은 JEDEC(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등 표준 규격에 기반해 IP를 개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

2026년 1월 Cadence가 Microsoft의 RAIDDR ECC 기술을 결합한 데이터센터용 LPDDR5X 메모리 IP 솔루션을 공개하고, Microsoft가 첫 도입 고객으로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LPDDR이 기존 모바일 중심 수요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갈수록 전력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전력 표준 기반 메모리 IP를 보유한 업체들의 성장 기회는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DRAM 시장 규모



자료: Yole Group, Gartner, TrendForce 등 주요 시장 추정치 총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I 데이터센터 LPDDR 활용 사례

JAN 21, 2026

Industry News

Cadence LPDDR5X IP system integrates Microsoft RAIDDR ECC

The subsystem targets 40-bit LPDDR5X channels at up to 9600 Mbps with sideband ECC and a compact form factor for servers.

Cadence announced an LPDDR5X memory IP system solution rated at 9600 Mbps for enterprise and data center applications that require high reliability. The solution combines Cadence's LPDDR5X IP with Microsoft's RAIDDR ECC scheme to support high bandwidth, power efficiency, and error correction. Microsoft is the first customer to deploy the system solution.

자료: Engineering.com,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K-온디바이스 AI 정책 수혜

온디바이스 AI IP 수혜

정부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오픈엣지테크놀로지의 중장기 수혜 요인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은 2026~2030년 5년간 총 8,002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주요 산업에 적용 가능한 국산 온디바이스 AI칩 10종 개발과 완제품 탑재·실증을 목표로 한다. 온디바이스 AI칩이 탑재되는 기기는 배터리 또는 제한된 전력 환경에서 구동되는 경우가 많고, 발열·면적 제약도 크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높다. 이에 따라 LPDDR 기반 인터페이스 IP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 수요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대동, 한국항공우주 등이 확인된다.

정책의 핵심은 수요기업과 팹리스를 단순 매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도체 IP-EDA-파운드리까지 포함한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산업부는 6월 반도체 제조지원 TF를 발족했으며, 사업 참여 팹리스를 대상으로 IP 구매 비용, EDA 라이선스, 파운드리 기술 지원 및 제조라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IP 업체의 사업 기회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픈엣지는 NPU IP, DDR 메모리 컨트롤러, DDR PHY, NoC 인터커넥트 등 온디바이스 AI칩 설계에 필요한 핵심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칩은 제한된 전력·면적 환경에서 AI 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NPU 성능뿐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 데이터 이동 효율, 저전력 설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NPU와 메모리시스템 IP를 동시에 제공 가능한 동사의 포트폴리오는 K-온디바이스 AI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삼성파운드리와 동반 성장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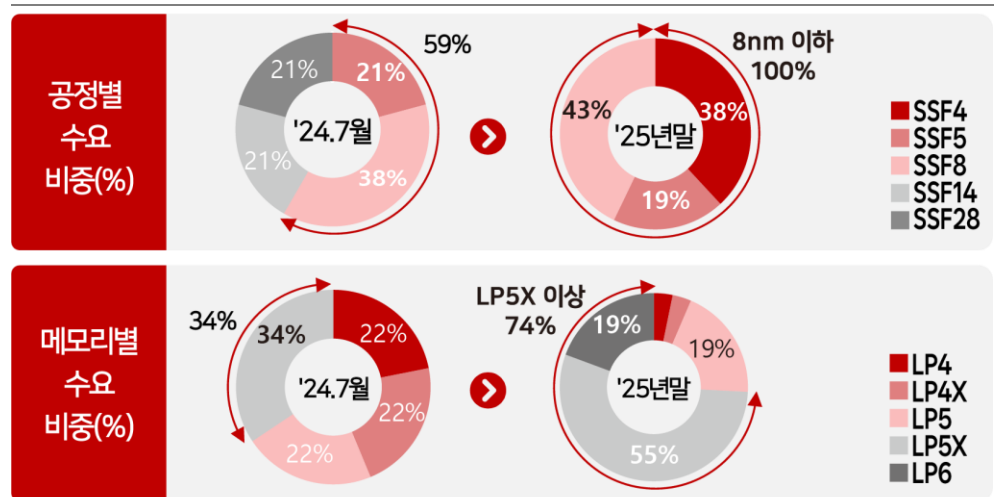
삼성 수주 확대에 따른 IP 수요 증가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삼성 파운드리와의 첨단 공정 수주 확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IP 업체다. 최근 TSMC의 가격 인상, 공급 Capa 부족 등으로 팹리스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4nm, 5nm, 8nm 등 주요 공정에서 수율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8nm 이하 첨단 공정 기반의 LPDDR5X 이상 최신 메모리 IP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NPU, Memory Controller, PHY 등 AI 반도체 핵심 IP를 보유한 오픈엣지테크놀로지에 긍정적이다.

국내 시장 부진을 해외 수주 확대가 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2025년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다소 부진했으나,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해외 수주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성장성을 입증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고객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주가 기대된다. 중국 고객사는 미국-대만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내 IP 및 파운드리 생태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고객사 역시 기존 TSMC 중심의 생산 전략에서 벗어나 삼성 파운드리 8nm 이하 공정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이미 2025년 일본 Renesas, Megachips와 수주를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한 바 있다. 일본 고객사는 보수적인 특성상 검증된 레퍼런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해당 성과는 향후 일본 및 아시아 지역 고객사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삼성 파운드리와의 첨단 공정 수주 확대, 아시아 팹리스의 공급망 다변화, 동사의 일본향 레퍼런스 축적이 맞물리며 오픈엣지테크놀로지의 중장기 성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수주후보 Pool 내 삼성 파운드리 공정/메모리표준별 비중 변화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TSMC OIP(Open Innovation Platform)은 미편입

경쟁사 대비 삼성 파운드리 공정별 DDR PHY 전송속도 비교

파운드리	공정/메모리 Type		오픈엣지	S사	C사	당사 경쟁력
삼성	4nm	LP6	14.4Gbps(26.2H)	-	14.4Gbps	동등
	4nm	LP5X	10.7Gbps(26.2H)	8.5Gbps	-	우위
	5nm	LP5X	8.5Gbps 출시 9.6Gbps(26.1H)	8.5Gbps	LP6 개발 중 (27.1Q 목표)	우위
	8nm	LP5X	9.6Gbps(26.1H)	8.5Gbps	-	우위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경쟁사와 직접 경쟁 최소화 및 차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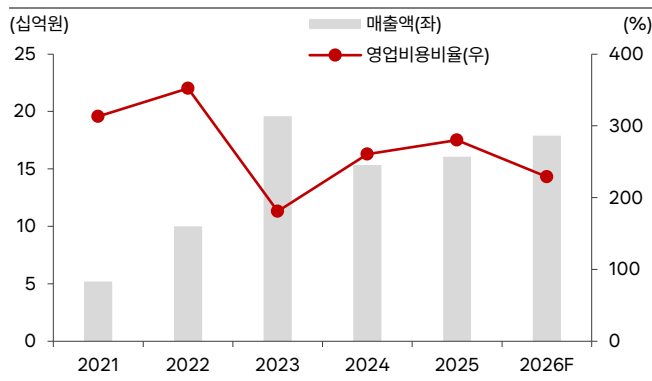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적극적인 비용 효율성 제고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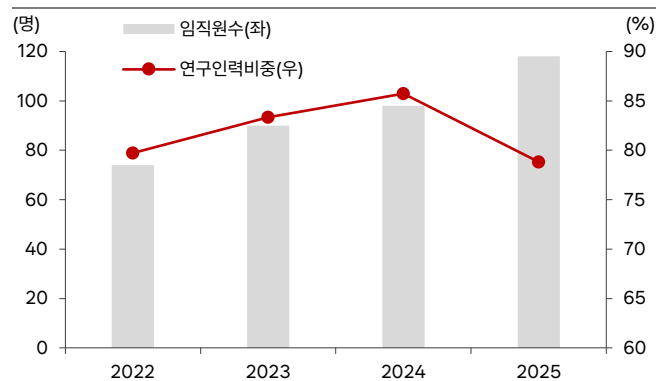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신생 IP 업체로서 그간 기술 포트폴리오 확장과 성장 기반 확보에 주력해왔으나, 최근 경영 기조를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IP 기업 특성상 영업비용의 약 90%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캐나다·일본에 R&D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은 북미 R&D 인력을 축소하며 비용 구조를 정상화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연간 비용을 40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 가시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향후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와 마진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R&D 비용에 좌우됨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R&D 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효율화 진행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국내법인 기준

실적 추이 및 전망

1분기 실적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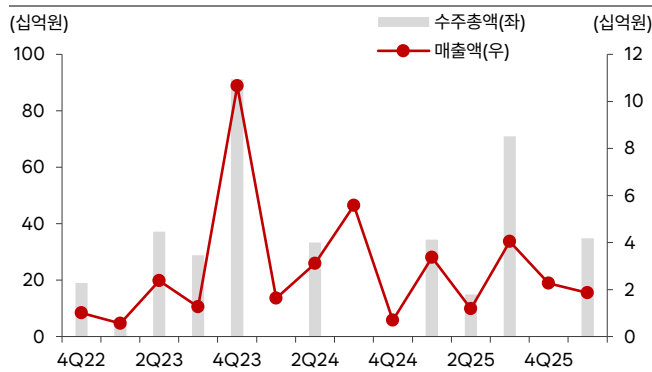
일회성 비용 반영, 하반기 회복 기대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2026년 1분기 매출액 27억원(-44.3% YoY, 이하 YoY), 영업적자 90억원(적자확대)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으며, 적자 폭도 확대되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매출 비중이 약 68%에 달하는 라이선스 사업부가 18.6억원(-44.7%)를 기록했다. 2025년 9월 두건의 대형 수주 이후 4분기에 신규대형수주가 나오지 않은 결과로 판단한다.

영업비용비율도 전년동기대비 200%p 확대되었는데, 2025년 미국법인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 주식보상비용 9.5억원과 테스트칩 제작 비용 56억원이 1분기에 반영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용 효율화 작업이 지속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분기 비용 규모가 1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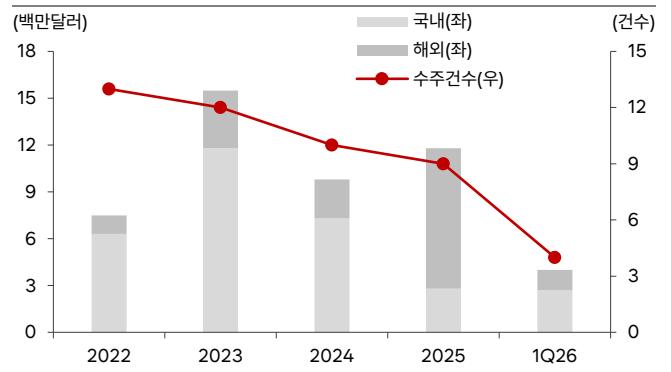
1분기 말 기준 누적 라이선스 계약은 75건을 확보했다. IP 사업 특성상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매출 인식까지는 통상 1~2개 분기의 리드타임이 발생한다. 이미 개발된 IP를 제공하더라도 고객사별 요구사항에 따른 미세 조정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라이선스 계약 증가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수주총액과 매출액 추이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수주금액 및 건수 추이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정리

수주일자	판매 · 공급계약 내용	계약금액(억원)	판매 · 공급지역	계약 상대방
2022-12-05	IP 라이선스 계약	13	중국	Glenfly Tech Co.,Ltd
2022-12-14	IP 라이선스 계약	6	한국	주식회사 세미파이버
2023-01-10	IP 라이선스 계약	6	중국	Senscomm Semiconductor Co.,LTD
2023-04-25	IP 라이선스 계약	14	한국	한화비전 주식회사
2023-05-31	IP 라이선스 계약	24	한국	한국 소재 반도체 기업
2023-07-31	IP 라이선스 계약	29	해외	해외 소재 반도체 기업
2023-11-07	IP 라이선스 계약	91	한국	SK 하이닉스
2024-06-28	IP 라이선스 계약	33	한국	한국 소재 반도체 기업
2025-02-26	IP 라이선스 계약	34	해외	해외 소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
2025-06-26	IP 라이선스 계약	15	한국	(주)에이디테크놀로지
2025-07-14	IP 라이선스 계약	25	해외	해외 소재 반도체 기업
2025-09-25	IP 라이선스 계약	27	국내	국내 소재 반도체 기업
2025-09-29	IP 라이선스 계약	20	해외	해외 소재 반도체 기업
2026-03-31	IP 라이선스 계약	35	국내	국내 소재 반도체 기업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실적 전망

하반기 수주 비용절감 동시 효과

2026년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매출액 179억원(+11.4% YoY), 영업적자 231억원(적자지속)을 기록할 전망이다. 2분기에는 신규 수주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하반기에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 관련 국내 수주와 2025년에 이어 견조한 해외 수주가 집중되며 연간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하반기부터 영업비용 축소 흐름이 가시적일 전망이다. 당사는 미국 법인을 청산하고 캐나다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은 국내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보조금 확대도 긍정적이다. 2025년 정부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약 25억원 수준으로 재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매출 성장과 비용 효율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적자 폭 축소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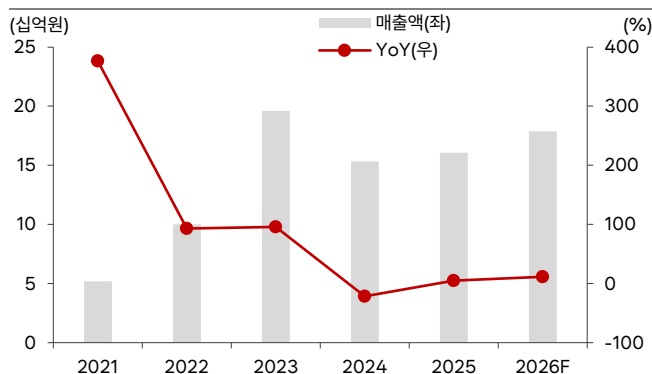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F
매출액	153	161	179
라이선스	110	109	134
유지/보수	33	42	39
로열티	1	1	1
영업이익	-246	-289	-231
영업이익률	-161	-180	-129
당기순이익	-273	-301	-91
당기순이익률	-178	-188	-51
YoY			
매출액	-22	5	11
라이선스	-26	-1	23
유지/보수	43	28	-7
로열티	17	23	-8
영업이익	-59	-6	-46
당기순이익	적지	적지	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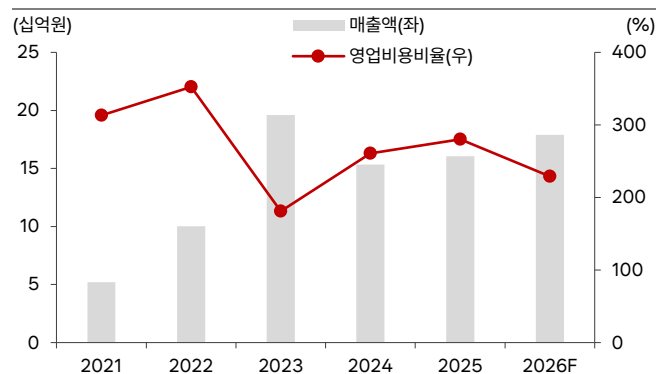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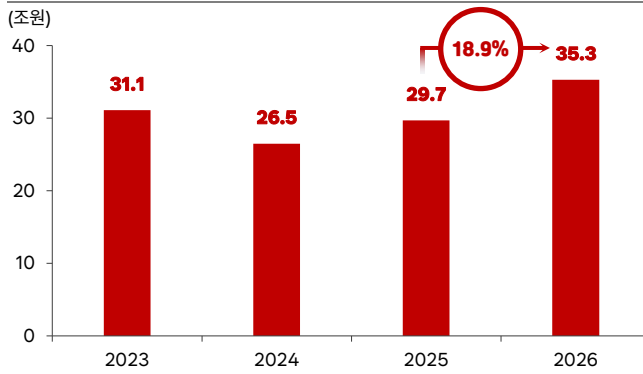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비용비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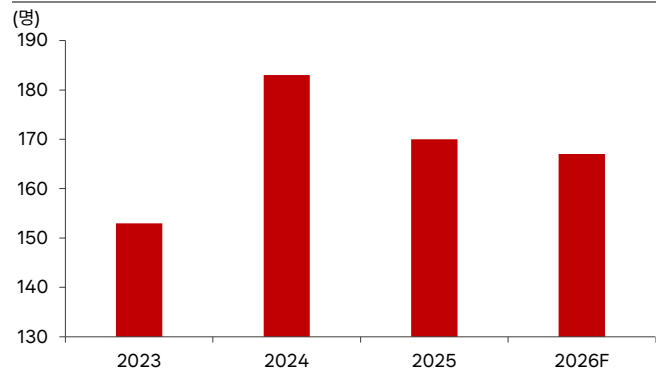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정부 전체 R&D 예산 – AI 분야 2.3조원, 전략기술 8.5조원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체 임직원 수 추이



자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6년은 1분기말 기준

Valuation

1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증명할 기업

고부가 IP 성장성 부각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 2,8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SR은 17.9배, PBR은 25.2배 수준이다. 적자기업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PER 밸류에이션 적용은 어렵지만, 반도체 IP 업체의 특성상 매출 성장성과 기술 확장성을 반영한 PSR 접근이 적절하다. 국내 Peer 평균 26E PSR이 9.7배임을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절 대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장 잠재력 대비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동사의 Peer로는 국내 칩스앤미디어, 퀄리티스반도체, 아이씨티케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ARM, Cadence, Synopsys, CEVA, VeriSilicon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업체별 사업 영역과 기술 위상에는 차이가 있다. ARM은 CPU 아키텍처와 SoC 생태계를 장악한 최상위 IP 플랫폼 기업이며, Synopsys와 Cadence는 EDA 기반 고객 접점을 바탕으로 IP 사업을 확장한 종합 설계 플랫폼 기업이다. 반면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AI SoC 구현에 필요한 고부가 IP에 특화되어 있어, 체급과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국내 IP 기업들이 직접적인 비교 대상에 가깝다.

국내 Peer 중에서는 퀄리티스반도체가 가장 유사하다. 퀄리티스반도체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IP를 공급하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유사하게 PHY IP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적용 영역은 다르다. 퀄리티스반도체는 칩 외부 또는 칩렛 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 PHY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SoC와 DRAM을 연결하는 DDR PHY와 Memory Controller, NoC 등을 기반으로 AI SoC 내부 데이터 이동과 메모리 접근 효율을 높이는 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코덱 IP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 영상처리 NPU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아이씨티케이는 PUF 기반 보안 IP 및 보안칩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오픈엣지테크놀로지와 직접적인 사업 영역은 다르지만, 반도체 설계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장 Peer로 참고 가능하다.

국내 Peer Valuation

(단위: 십억원, 배)

기업명	종가 (원)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S		P/E		P/B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오픈엣지테크놀로지	12,190	321	16	18	-29	-17	22.3	17.9	N/A	N/A	21.0	25.2
칩스앤미디어	12,160	260	28	31	7	8	13.4	8.3	64.4	26.9	4.4	3.0
퀄리티스반도체	10,080	143	5	N/A	-24	N/A	39.5	N/A	N/A	N/A	5.9	N/A
아이씨티케이	17,950	260	4	23	-9	6	55.1	11.2	N/A	40.7	5.2	5.2
평균	-	-	-	-	-	-	36.0	9.7	64.4	33.8	5.2	4.1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Global Peer Valuation

(단위: 십억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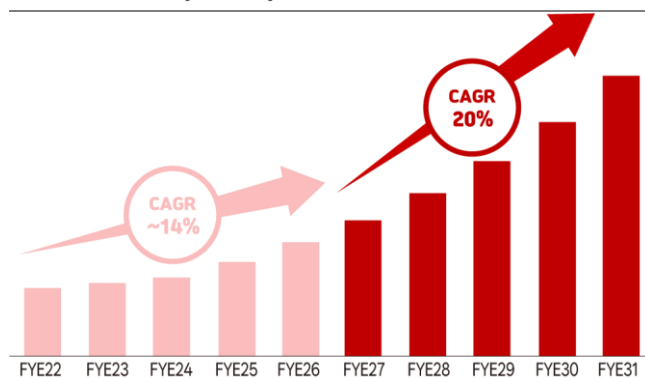
기업명	증가(원 달러, 위안)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S		P/E		P/B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오픈엣지테크놀로지	12,190	321	16	18	-29	-17	22.3	17.9	N/A	N/A	21.0	25.2
VeriSilicon(중국)	342	41,235	623	1,388	-100	58	N/A	29.7	22.3	N/A	N/A	415.2
Ceva(미국)	46	1,971	156	N/A	-16	N/A	N/A	N/A	4.8	N/A	N/A	N/A
Arm Holdings(영국)	337	560,275	7,011	9,296	1,282	3,835	1,282.5	60.3	32.8	N/A	178.7	154.7
Cadence(미국)	378	161,944	7,533	9,644	2,122	4,178	16.1	16.8	77.0	47.5	15.5	14.7
Synopsys(미국)	455	135,284	9,976	15,053	2,070	6,216	10.7	9.0	56.4	30.7	3.0	2.6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아직 적자기업이라는 점은 밸류에이션 부담 요인이다. 다만 정부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정책, 국내외 고객사 수주 확대, 비용 효율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증가가 가시화되고, 2027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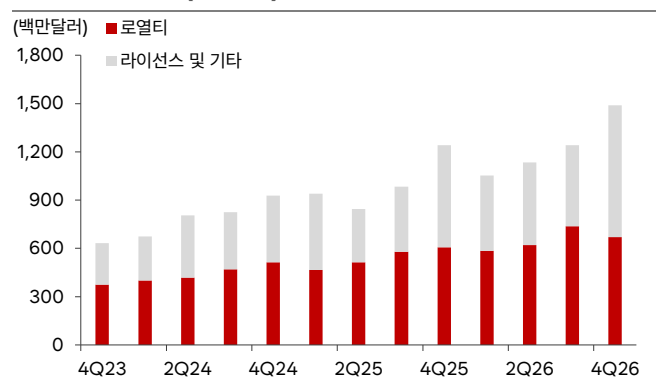
장기적으로는 로열티 매출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아직 신생 IP 업체로, 현재 매출 내 로열티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도체 IP 업체의 사업모델 특성상 라이선스 계약이 누적되고 고객사의 칩 양산이 확대될수록 로열티 매출이 후행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는다. 실제로 글로벌 IP 선도업체인 ARM의 경우 로열티 매출 비중이 절반에 달하며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역시 단기 실적보다는 AI 반도체 인프라 IP 업체로서의 기술력과 중장기 로열티 레버리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RM 4분기 실적발표(26년 3월) - 로열티 매출 증가율



자료: ARM,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RM 4분기 실적발표(26년 3월) - 로열티 비중이 45%



자료: ARM,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K온디바이스 정책 수주 못한다면
국산 IP 채택 변수

리스크 요인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서 오픈엣지테크놀로지가 예상보다 낮은 규모의 국내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이다. 동 사업은 수요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 IP·EDA 업체 간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팹리스별 자체 IP 활용, 해외 IP 채택, 세트기업의 개발 방향 변화 등에 따라 동사의 참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정부 과제가 대규모로 추진되더라도 예산이 IP 업체에 직접 배분되는 구조가 아닐 경우, 동사의 매출 인식 시점이나 수주 규모는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다.

다만 해당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K-온디바이스 사업의 핵심 취지가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있는 만큼, 국내 팹리스와 국내 IP 업체 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온디바이스 AI칩은 저전력·고효율 설계가 중요하고, 동사는 NPU, 메모리 컨트롤러, PHY 등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주요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정책 방향성과 동사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국내 IP 채택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혜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00	196	153	161	179
증가율(%)	93.1	95.7	-21.8	4.8	11.4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원가율(%)	0.0	0.0	0.0	0.0	0.0
매출총이익	100	196	153	161	179
매출이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관리비	353	355	399	450	409
판매관비율(%)	353.0	181.1	260.8	279.5	228.5
EBITDA	-238	-138	-225	-220	-215
EBITDA 이익률(%)	-238.1	-70.5	-146.8	-136.7	-120.1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253	-159	-246	-289	-231
영업이익률(%)	-252.3	-81.0	-160.6	-180.0	-128.9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4	14	-22	-5	6
금융수익	14	15	26	34	42
금융비용	11	12	45	41	38
기타영업외손익	1	11	-3	2	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48	-145	-268	-294	-225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4	3	5	7	5
계속사업이익	-252	-149	-273	-301	-229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52	-149	-273	-301	-229
당기순이익률(%)	-252.0	-75.8	-178.0	-187.6	-128.3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52	-149	-273	-301	-229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67	-199	-103	-186	-206
당기순이익	-252	-149	-273	-301	-229
유형자산 상각비	14	20	20	22	15
무형자산 상각비	0	1	1	48	1
외환손익	0	1	0	3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50	-77	92	12	8
기타	21	5	57	30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0	137	-403	204	-3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12	-168	-4
유형자산의 감소	0	2	0	2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9	-22	-4	-7	-6
기타	-81	157	-387	377	-2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53	57	601	-36	192
차입금의 증가(감소)	50	50	0	0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305	10	0	0	192
배당금	0	0	0	0	0
기타	-2	-3	601	-36	0
기타현금흐름	2	1	3	-2	0
현금의증가(감소)	-12	-3	98	-20	-50
기초현금	58	46	42	140	120
기말현금	46	42	140	120	70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443	298	740	301	284
현금성자산	46	42	140	120	70
단기투자자산	290	117	525	131	158
매출채권	49	63	8	6	7
재고자산	0	0	0	0	0
기타유동자산	59	76	67	43	48
비유동자산	96	148	127	174	168
유형자산	26	31	24	17	8
무형자산	31	31	33	101	100
투자자산	11	47	32	31	35
기타비유동자산	28	39	38	25	25
자산총계	539	447	867	475	452
유동부채	183	197	215	249	258
단기차입금	100	150	150	150	150
매입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83	47	65	99	108
비유동부채	33	44	44	56	60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33	44	44	56	60
부채총계	216	241	260	305	318
자배주주지분	322	206	607	171	133
자본금	21	21	25	25	26
자본잉여금	964	983	1,643	1,672	1,863
자본조정 등	17	29	31	-10	-1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3	7	15	11	11
이익잉여금	-683	-834	-1,107	-1,528	-1,757
자본총계	322	206	607	171	133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4.9	26.8	5.7	21.0	25.2
P/S(배)	13.7	27.9	21.0	22.3	17.9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1,367	-697	-1,183	-1,208	-846
BPS(원)	1,524	959	2,446	683	485
SPS(원)	542	919	665	644	66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95.6	-56.3	-67.1	-77.5	-151.0
ROA	-56.1	-30.2	-41.5	-44.9	-49.5
ROIC	-420.2	-128.8	-204.7	-372.1	-319.6
안정성(%)					
유동비율	241.9	151.1	343.6	121.3	109.9
부채비율	67.0	117.3	42.8	178.5	238.8
순차입금비율	-64.3	14.5	-78.6	-37.8	-31.2
이자보상배율	-46.0	-20.0	-25.5	-32.6	-26.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2	0.4	0.2	0.2	0.4
매출채권회전율	4.0	3.5	4.3	22.5	27.4
재고자산회전율	N/A	N/A	N/A	N/A	N/A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오픈엣지테크놀로지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7.03	오픈엣지테크놀로지-AI SoC 병목을 푸는 인프라 IP 기업
2023.03.17	오픈엣지테크놀로지-투자자 시각 변화를 주도하는 시스템 반도체 대표주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